

격려사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고분자 과학기술의 본산인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에 걸친 학회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다가오는 미래 100년의 설계도를 그리는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 편찬은 우리 과학기술인 모두의 큰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척박했던 연구 환경 속 고분자 과학의 씨앗을 뿌렸던 1976년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고분자학회는 단순한 학술 단체를 넘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선배 과학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후학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응집된 지난 50년의 기록은,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아주 중요한 역사이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그야말로 ‘고분자의 시대’였습니다. 고분자 과학은 우리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77년 창간한 학회지 <폴리머>는 국내 연구자들의 훌륭한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됐고,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로 거듭났습니다.

재료 과학자의 시각에서, 고분자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골격과도 같습니다. 건축 자재, 자동차 범퍼와 타이어, 모니터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세탁기, 항공기, 우주선 등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의 모든 물건의 재료는 모두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용 감광재, 이차전지 분리막, 생체 이식용 소재에 이르기까지 고분자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이러한 기술적 변곡점마다 학문적 가이드를 제시하며, 산·학·연을 잇는 단단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수많은 학술 발표회와 조사 연구, 자료 수집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는 국가 R&D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됐습니다.

올해 재료연구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재료연구원 또한 소재 기술의 자립화와 첨단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고분자학회와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모든 재료는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융합 기술의 트렌드 속에서 고분자 소재의 다기능화와 복합화는 소재 혁신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온 기록이며, 이와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기술적 공백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창립 50주년의 기쁨을 넘어,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설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소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분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 항공,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초격차 전략 소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분자 연구자 가족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결코 기억될 수 없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 편찬은 우리 과학기술계의 소중한 자산을 보존하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이 책에 담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후배 과학자들에게 영감이 되고, 산업계에 확신을 주며, 국가에 희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도 한국고분자학회와 함께, 다가올 100년의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과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최철진**